

# 여야 '이상민 해임안' 갈등 격화...예산안·국조 난항

민주 "참사 책임 묻는 첫 단추"  
"해임안 수용 거부땀 탄핵 추진"  
국힘 "이성 잃은 다수당의 폭거"

여야는 12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면서도 향후 예산안 협상과 국정조사 등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에 해임 건의 수용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며 "다수 의석으로 힘 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중혁 비대위원도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여주면 위험하듯이 민주당이 벌이는 의회 권력의 폭력적 남용은 이성을 상실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민주당을 향해 거친 비난을 이어갔지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대해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예산안 협상 및 국정조사 동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너무 조급한 것인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악수를 뒀다"며 "국정조사를 합의한 시점에서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라는 자충수를 두면서 '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애초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을 두고 원내지도부 책임론도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기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현금 주고 부도어음 받은 꼴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려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을 가지도 없다'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결국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예고한 단계적 문책론으로 간다는 것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며 "저희가 총לות이 논의해서 그다음 단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150명) 통과가 가능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69석)이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해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당내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해봤다"며 이 장관이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부산서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엑스포 예정지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부산을 찾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예정지를 사찰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에는 항만 안내선을 타고 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둘러본다. 부산 당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비대위가 직접 지역을 찾아 현장 민심 취회에

나서는 것은 약 한 달 반 만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월 지역 현안을 직접 살피고 현장 민심을 듣겠다는 취지로 전국 순회 계획을 세웠다.

첫 일정으로 지난 10월 13일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충남 천안을 방문했지만, 하루 뒤인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후 순회 일정은 잠정 보류됐다.

비대위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을 재

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일정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비롯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조정래·서병수·안병길·김희근·김미애·백종현·전봉민·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야당과의 예산안 협상 때문에, 김석기 사무총장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 일정 등으로 각각 불참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38.4%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58.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주보다 소폭 하락한 38.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결과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4%, 부정 평가는 58.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각각 0.5%포인트-0.1%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차(33.4%)부터 2주 연속

상승해 지난주 38.9%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소폭 떨어졌다. 다만, 일일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지난 7일 40.4%를 기록해 한 차례 40%대를 넘기도 했다. 부정 평가는 11월 3주차 63.8%에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70%에 육박한 69.2%로 나타나 6월 5주차(7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국힘, 내년 3월초 전당대회...“100만 당원 시대”를 조정 시사

정진석, 부산 당원들 만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전망이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대 룰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이 전대 시기와 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입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로, 이날은 정확히 임기 절반이

된 날이다.

정 위원장은 "스피드를 내서 3월경에는 전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종합하면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3월 초에 전대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전대룰과 관련해 '당원 비중'을 현행보다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그 이유로 당원 규모가 커졌다는 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전대의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1년 반 전에 이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명이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당 책임당원은 100만명이다. 이전 다르다. 우리가 국민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선 7대3인 비율을 8대2나 9대1로 바꾸자는 주장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은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전대 룰에) 반영하고, 여러분의 공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빛4호기를 더욱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공극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발견된 공극은  
완벽하게 보수하였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 빛 원 자 력 본 부